

육아휴직 남편 1백10명, 전체 대상자 중 0.3%

96.9.20 사무직 종사자 84.2%, 월수 1백50이상 35.8%

노동부는 작년 한해동안 육아휴직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2천 8백3개업체 가운데 4천3백79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. 이는 전체 대상자 5만5천7백18명중 7.3%를 차지하는 수치로 이 가운데 0.3%가 육아휴직 아빠이다.

육아휴직자의 직종별 분

포는 사무직이 3천6백71명(84.2%)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산직, 연구기술 관리직이 각각 3백28명(7.5%), 2백45명(5.6%)으로 나타났다. 임금수준은 '월수입 1백50만원 이상'이 1천5백63명(35.8%), '1백20만원-1백50만원'이 9백66명(22.1%)인 것으로 조사됐다.

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근

로자 5만1천69명중 2만8천78명(55%)은 휴직 하지 않은 이유를 '필요없기 때문'이라고 응답했고 9천1백76명(18%)은 '수입감소', 5천5백94명(10.9%)은 '사용 전례가 없어서', 2천2백89명(4.5%) '업무단절', 1천2백18명(2.4%) '인사상 불이익'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.